

울산단지, 2004년 석유화학 수출증가

2004년 1/4분기 수출 81억달러로 5.5% 증가 ... 생산도 호조 전망

울산·온산 국가산업단지의 2004년 1/4분기 경기가 주력업종인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의 지속적인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(이사장 김동근)이 발표한 <2004년 1/4분기 경기전망>에 따르면, 울산·온산 산업단지 수출은 2003년 4/4분기보다 5.5% 증가한 81억2100만달러, 생산은 2.5% 증가한 17조20억원으로 조사됐다. 가동률도 산업단지 주력업종의 수출증가로 4/4분기 대비 0.2%p 상승한 85.5%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.

울산단지의 성장률은 전국 산업단지의 4/4분기 대비 평균 성장률인 수출 4.2%(228억9100만달러), 생산 1.6%(52조3090억원)를 상회하는 것이다.

생산은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기초한 북미지역으로의 완성차 수출 증가와 충분한 조업물량을 확보한 조선업계의 완전가동 및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호조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.

수출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 상승, 중국경제의 호황에 따른 수입수요 급증, 북미 및 유럽시장에서의 완성차 수출호조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, 내수경기도 완성차의 판매회복 및 유류의 계절적 성수기, 건설·자동차·전자 등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.

2003년 4/4분기 수출 및 생산은 76억9700만달러와 16조5890억원으로 3/4분기 대비 9.4%, 6.9%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한편, 울산·온산 산업단지 입주기업 29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2004년 1/4분기 128(2003년 1/4분기 109)로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15>